

< 필자의 말 >

이 책은 국어 고정1등급을 맞는 수험생들은 필요없다!!

그러나 고정 1등급을 맞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여러 과외, 학원에서는 실전에서 써 먹기 힘든 독해법 스킬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현혹한다. 수험생들은 강사의 문제풀이 방법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차려야한다. 수능을 푸는 사람은 강사가 아닌 수험생 자신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독해법은 무엇일까? 먼저 ‘독해’라는 의미를 알고 들어가자. ‘독해’는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임을 알자

고정1등급을 맞는 수험생들은 수능장에서 제한된 시간안에 난해한 과학, 철학, 기술 지문을 독해, 즉 읽고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지문을 읽는 ‘독’만 가능하지 이해의 ‘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독해능력은 단기간 속성훈련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어린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올리는 능력이다. 그러나 현재 고정1등급을 제외한 수험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자부한다.

그렇다면 독해능력이 없으니 점수향상은 늦은것아니냐. 반문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 반문에 대한 답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독해' 라는 말은 필요없는 단어이다. 최소한 수능국어에서 '올바른 독해법' 이란 단어는 어떻게 하면 국어시간에 시간을 더 남겨서 수학시간을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고정1등급을 맞는 수험생들에게만 필요한 방법이다.

즉!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올바른 독해법' 은 필요없는 말이다. 수능국어는 '독해' 의 비중이 매우작다. '독해' 가 필요한 문제는 1.0~1.5등급을 변별짓는 단 1문제 뿐이다.

그렇다면 수능국어는 무엇인가?

수능국어는 누가 지문에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문에서 잘 찾는가의 싸움이다. 즉 독해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수험생 사이에서는 지문에서 문제를 잘 찾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다.

자세한 방법은 본문에서 다룬다.